

# 한전공대 설립 탄력불나...국감 무난 통과

### 국감서 맹폭 예고 불구 한전 설득에 야당의원들 '끄덕'

###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법안 신청...내년 초 첫삽 뜰 듯

한전공대 설립작업이 학교법인 설립 신청에 이어 최대 고비로 예상됐던 국회 국정감사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는 한전공대 설립을 반대하는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예상됐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낮았다는 평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전의 적자 누적, 대학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한전공대 설립이 적절치 않다는 측면을 제기했지만 한전의 설득논리에 대부분 추가적인 질의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22년 개교 목표인데 왜 급하게 서두르는가"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에 개교하려는 의도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의 윤한홍 의원은 "한전

공대 이야기가 나온 건 탈원전 정책이 나오기 전으로 당시는 한전의 재정적 상황이 무척이나 좋을 때였다"며 "하지만 지금 탈원전 정책과 전력원가 상승 등으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한전공대를 논의할 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공대가 7년만에 문 닫고 에트리(ETRI)와 KT가 세운 한국정보통신대학교도 6년만에 문 닫은 이유는 정부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광주과기원이나 다른 종합대학 내에 설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강조하며 야권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종갑 사장은 "에너지산업은 이전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다가온다. 연간 1조원 연구개발 하는 기업이 못되면 세계 10대 전력 기업이 못된다"며 "물론 학령인구 감소, 한전 적자가 있고 기존대학 이용 등이 방법일 수 있겠지만 최선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새로운 모델의 대학은 꾸준히 탄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으로서 어려운 때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 투자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며 "길게 보면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기업의 투자는 계속돼 왔고 한전공대는 한전의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도 한전공대 설립을 적극 지원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한전공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한전에 힘을 실어줬다.

같은 당의 송갑석 의원은 "고급 인력에 대한, 기업의 신산업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위기 또한 한전공대 설립의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달 30일 교육부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하게 되어 있어 올해 말 학교법인 설립이 가능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유와 나눔으로 하나되는 공유도시 광주 실현** 광주시는 지난 12일 시청 시민광장 일원에서 제4회 광주 공유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 온 공유 촉진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지역 내 공유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공유단체와 공유활동가 130여개 팀, 일반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로 하나되는 광주'라는 주제로 ▲공유무대 ▲공유 의 거리 ▲공유놀이터 ▲공유장터 등 4개 테마(존)으로 진행됐다.

## 광주시,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 대진단 실시

12월13일까지 방 탈출 카페·코인노래방·고시원 등 전점점을 한다.

방 탈출카페는 비밀통로 등을 설치해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잠겨 있는 방에서 이용자들이 탈출하는 놀이공간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지만, 법상 미비로 소방교육, 소방점검, 소방시설 설치 등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밖의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코인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법을 적용받지만, 업주가 노래연습

광주시는 지속가능한 안전 공동체 구현과 동절기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점검을 위해 14일부터 12월13일까지 광주만의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대진단 점검 대상은 ▲겨울철 화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과 고시원 ▲신종자유업,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인·허가부서 관리 및 안전점검에서 제외된 안전사각지대 사업장인 방 탈출카페, 코인노래방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미초치한 안전무관심 다중이용시설 등 600여 곳이다.

시는 방 탈출 카페 13곳 모두와 사업장 규모가 큰 코인노래방, 고시원, 전통시장을 표본 점검하고 자치구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 안

장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선택해 등록할 수 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코인노래방은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과 상무지구 클럽붕괴 사고 이후 시행된 특별점검에서 제외돼 그동안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자유업인 방 탈출카페에 대해서는 건축·소방·전기 등 민간합동점검과 함께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시설법 등 건축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시설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해 점검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 동구,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서 최우수

광주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7월 지방재정확대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전국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정분석은 전년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인구·재정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를 14개 그룹으로 나눠 재정현황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를 평가한다.

##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제10회 풍암골 단풍축제

제10회 풍암골 단풍축제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구 풍암동 신암근린공원에서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문화공동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2년마다 열리는 풍암골 단풍 축제는 풍암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각 자생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기획·홍보 단계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서구의 대표적인 마을 축제다.

총 3부로 구성된 행사는 노래자랑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노래경연 2차 예선인 1부 행사로 시작되며, 2부 행사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회원들의 솜씨자랑과 주민 및 청소년 동아리의 재능기부 공연 등 주민문화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 남구 백운1동 골목길 LED보안등으로 환하게

광주 남구는 사업비 6,500여만원을 투입해 백운1동 관내 주택가 노후 보안등 LED 등기구로 교체 및 신설하는 작업에 나선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백운1동 관내에서 보안등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남광 아파트에서 대흥 백운스카이 2차 아파트 사이 및 제일파크맨션 아파트와 백운현대 아파트 주변, 한일 목욕탕 뒤편 주택가로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는 총 89개소에 대한 LED 보안등 교체 및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ED 보안등 교체 공사는 이달 중 시작해 올해 연말 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 북구, 영산강변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광주 북구가 보다 더 아름다운 영산강변 가꾸기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11월까지 다채로운 꽃과 나무 등을 식재해 지역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영산강변 환경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산강변은 지난 2008년에 조성된 산동교 친수공원을 중심으로 유채, 물억새, 코스모스, 습지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도로,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의 체육·편의시설로 인해 시민들에게 각광받는 여가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북구는 이달 중 용전동 용산마을, 대촌동 드론비행연습장, 연제동 거정이 쉽터, 동림동 산동교 친수공원 일원 등 영산강변 주요 둔치의 지장수목과 생태 교란종(취성물 등)을 제거하고 초화류와 관목류를 식재해 아름다운 하천 경관을 조성한다.

##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상

광주 광산구 보건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11일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제10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특히 아동의 생활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및 교사와 함께하는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교육을 운영하고, 낮 시간에 바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운동교실, 저염식이식단 운영 등 주민의 비만예방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